

다산포럼

행복의 절대량은 비슷하다는 진리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여름휴가 기간 책장을 정리하다 이전에 흥미롭게 읽은 책을 다시 열어 보게 되었다. 모토가와 타츠오(本川達雄)의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이라는 책은 '크기의 생물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미 20년 전에 발간되어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끈 책이다. 일본에서는 포유동물이나 영장류에 관한 연구를 이전부터 매우 깊게 연구해 이런저런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토가와와의 결론은 모든 포유류는 일생동안 비슷한 정도로 호흡을 하고, 비슷한 정도로 맥박이 뛰고, 사는 시간의 길이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선 포유류의 심장 박동은 일생동안 20억 회 정도 뛰한다고 한다. 코끼리는 100년 가까이 살지만 쥐는 몇 년 못 살고 죽는다. 하

지만 그들의 심장 박동수는 20억 회 정도로 마찬가지로 한다. 코끼리의 심장이 '쿵쿵' 천천히 뛸 때 쥐는 '팔딱팔딱' 뛰고, 코끼리가 숨을 느긋하게 할 때 쥐는 빠르게 숨을 쉰다. 심장이 4번 뛸 때 한번 팔로 숨을 쉬게 되어 포유류는 평균 일생동안 5억 번 정도 호흡을 하게 된다. 반면에 새들은 평균 3억 번 정도 숨을 쉬고 죽는다고 한다. 포유류들은 상대적으로 평생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살고 죽는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포유류의 시간은 적게 나가는 포유류의 4분의 1 제곱에 비례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 포유류의 체중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 16배가 무거우면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이나 느끼는 시간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2배나 길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끼가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 새끼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시간, 임신 가능하게 성숙하는 시간 모두 4분의 1 제곱 법칙을 따른다고 한다. 몸무게가 무거운 짐승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깨고 생활하는 시간이나 몸무게가 아주 작은 포유류가 느끼고 생활하는 시간의 양은 같다는 것이다. 심지어 숨을 쉬는 간격, 심장 박동 간격,

피가 체내를 한 바퀴 도는 시간, 체내에 이 물질이 들어온 다음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 등 모든 일상 활동의 시간이 신기하게도 포유류 체중의 4분의 1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모든 포유류들의 평생 시간은 같다는 것이다. 최근 잘 나가던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장, 전설의 PD, 국회의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명 배우, 인기 가수들도 쉽게 생을 포기한다. 일반인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와 명예, 그리고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상태에 내몰려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무엇이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 세계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평균 6.6배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9만 원에서 2011년 2586만 원이 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약 40년 만에 경제가 287배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32위로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이다. 반면에 1인당 국민소득 천불도 안 되는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최고로 높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1000불을 넘은 것은 1977년이다. 경제만 보면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엄청나게 비대해졌지만, 행복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닌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 잘 살기보다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사회공동체를 좁혀 가고 있다. 공공재나 공공선을 뒤로한 치열한 경쟁은 우리를 행복한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부를 얻기 위한 지나친 경쟁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세끼밥 먹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호텔의 비싼 음식이 일반 가정 음식의 수십 배 비싸다고 해도 맛이 수십 배 좋은 것은 아니다. 인기가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연예인들은 마음대로 집 밖에 다니지도 못한다. 포유류의 시간이 몸무게 4분의 1 제곱 법칙을 따르듯 우리 행복의 양도 가진 재물의 4분의 1 제곱 법칙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일생 느끼는 행복의 절대량도 포유류의 심장 박동수나 호흡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슷할지 모른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사회의 행복은 커지게 될 것이다.

양동욱의 S 스토리

국가가 통제 한 성생활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유럽사에서 19세기는 영국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영국은 지구가 돌아서 영국에는 밤이 오더라도 세상 어딘가 영국국의 식민지 중 한 곳 이상은 낮이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당시 영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도덕적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1837년부터 60여 년 가깝게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노력이 컸다. 열여덟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당시 왕실은 끝이 없는 추문과 퇴폐풍조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18세기 유럽 전체에 만연한 사회분위기였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전 세계의 지도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에 대해 과학자들, 특히 의학자들을 불러 연구했다. 결국, 그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가치'라는 새로운 풍조를 내세우며

19세기 영국사회와 더불어 유럽사회의 성에 관한 태도를 보수로 회귀시켰다. 과학자들이 내세운 국민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성욕의 통제'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성교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는데 이것이 곧바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믿었다. 여왕의 지시에 따라 과학자들은 '성생활 지침서'를 발간해서 국민들이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이른다. 주된 내용은 '성생활은 부부간에 국한하며 성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다. 성교는 부부생활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으로 받아들였지만, 쾌락추구는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친다고 믿었다. 그래서 성교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자녀출산을 목적으로 한 철저한 निय을 강조했다. 이러한 풍조는 당시에 도덕적인 의무임과 동시에 의학적으로 권장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하루 살에 결혼하여 2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여왕 역시 자녀출산에 목적을 둔 금욕적인 성생활과 화목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각적 신호에 민감한 남성들의 성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

성들의 육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기독교적 사고에 따라 과학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 주목했는데, 이브가 사탄을 상징하는 뱀으로부터 선과과를 받아 아담에게 건네줬던 것처럼 여성은 성적인 측면에서도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여성의 신체 중에서 성적·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각기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무릅계도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들은 여성의 몸 중에서 남성을 유혹하는 부위를 규정하려 노력했고 그 부위가 바로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다리, 발목, 발끝에 이르는 곡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주장한 바로는, 남편들이 스스로 성욕을 잘 달래고 있는데 아내의 다리 곡선이 성욕을 자극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성생활 지침을 어길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당시의 중산층 여성들은 허리 아래에서 발목까지의 다리 곡선이 비치지 않도록 전분으로 딱딱하게 부풀린 치마를 입어야 했다. 딱딱하게 부풀린 치마가 남편의 성욕을 억제하는데 일조했다는지는 모르지만,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복병이 있었으니 그것은 집안의 식탁이나 피아노 다리였다. 남편이 피아노 다리를 보고 아내의 다리를 상상해서 신성한 성생활 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보게 된다. 결국, 피아노 다리 역시 유혹적이라는 이유로 다

리 덮개로 가리도록 했는데, 심지어는 식탁에 담그기와 같은 다리가 있는 음식을 내놓지 못하게 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정숙한 아내의 본보기는 성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복종적이며 오직 가정과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여성이었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당시 성욕의 통제는 여성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에게 더욱 집중되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성에 관해 어떠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에 자위나 사정을 하지 못하게 기상전환 '자위 행위 방지 기구'들이 19세기에 발명되기에 이른다. 출처가 의심스럽지만, 이제 고전이 되어 버린 어처구니없는 일화가 하나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공주가 어머니인 빅토리아 여왕에게 성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왕이 "눈을 감고 영국을 생각하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무성적인 존재로 교육받으며 철저히 순결의 확신이 되어야만 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이 히스테리 발작을 빈번히 일으켰던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히스테리를 치료하기 위해 진정요법을 받았는데, 의사가 진정기로 여성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오르가슴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었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가!

기고

댁의 정수기는 안녕하십니까?



강영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는 100여 년이 조금 지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는 깨끗한 물만이 아닌 건강을 지켜주거나 병을 치료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이 정수기이다. 많은 정수기 제조업체에서 각종 특허와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 낸 정수기는 성능도 우수하고 특별한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수년간 정수기 통과수의 미생물학적 검사를 해온 결과 각종 정수기의 효과 및 성능만큼이나 정수기 관리 또한 위생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이온을 적용시켜 물속에 있는 건강에 해롭거나 물맛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질을 좋게 하려는 제품이다. 이들에 적용된 정수방식은 필터여과, 이온교환수지, 활성탄, 역삼투압방식 등 다양하며 소비자들은 정수기의 이용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물의 염소냄새 등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활성탄 흡착방식을, 중금속이나 질산염·황산염 등 이온물질의 제거에는 이온교환수지를, 대장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살균할 때에는 UV램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정수기는 원수가 수도물이다. 간혹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수도꼭지에 정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수도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있는 미네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까지도 거의 걸러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수기는 내부에 물탱크를 가지고 있어 정수된 물이 그곳에 저장되는데,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다시 오염될 수 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했던 정수기 통과수의 수질검사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10년 21.4%, 2011년 19.6%, 2012년 18.5%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어 10대 중 2대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으로 음

용수의 기준인 100 CFU/mL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일반세균 자체가 병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세균이 많으면 다른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수기를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일반세균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바로 학교 정수기이다. 각 학교에 비치된 정수기는 최근 3년 평균 부적합률이 9.4% 정도로 일반 정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체 정수기에 의해 무목적도 정기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관리요령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정수기의 정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터를 적절한 시기에 맞춰 교환해야 한다. 정수

기에 사용되는 모든 필터는 일정 사용수량에서 정수기능을 잃게 되며 정수기 사용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정수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할 때는 일정시간 물을 흘려버린 후 사용해야 한다. 오랜 시간 정체되어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온이 실내 온도까지 높아지고 활성탄 등 필터의 내부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수기 내부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탱크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밤새 정수기 물탱크에 저장된 물은 버리고 새로 정수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는 수질이 좋은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좋은 물을 만들어 먹고자 사용하는 정수기이니만큼 철저한 위생관리 역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시민 안중에 없는 광주 시내버스 환승 개편

광주시가 시민들의 환승 혜택을 넓히겠다며 개편한 '광주 대중교통환승제'가 한달을 맞았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편익이 증진되기는커녕 하루 평균 6만5000명이 환승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니 환당하기 짝이 없다. 누굴 위한 환승 개편인지 시의 행정편의주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에 대해 첫 하차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자 30분을 초과한 버스 운행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기존에는 처음 탭 후 1시간 이내에 횡수 제한 없이 환승이 가능했었다. 실제 광주시가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기준으로 94개 노선 1일 이용객 41만8618명 중 16%에 이르는 6만4752명 일 운행간격 30분 이상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차례 이상 환승이 가능한 운행간격 15분 이하 노선은 고차 19%에 불과했고, 1일 이용객도 전체의 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용객 58%가 겨우 한차례 환승이 가능하거나 아예 환승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환승제 개편은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당치않은 소리다. "시민 불편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라느니, "버스업체의 편익만을 우선시한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데도 주민편익이 외면 당한다면 버스 준공영제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환승체계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더 이상 불편한 시민의 발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재정절감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한다. 대중교통 준공영제의 기본 취지가 시민편익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호남은 '빚더미'였다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호남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 사이 무려 52.9%나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9.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가계부채 중 주택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호남지역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 29조3000억 원에서 올해 5월 현재 44조8000억 원으로 52.9%나 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충청권이 50.7%, 영남권 43.9%, 수도권 35.6%, 강원·제주권 26.3%와 비교하면 전국 최대치다. 이 가운데 주택대출로 인한 부채 비중은 54%에 달했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호남권 가계부채는 예금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은 새마을금고나 신탁 등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5년 전에 비해 은행권 가계부채는 28.7%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은 83.7%가 늘어난 것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이명박 정권 기간 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호남권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있다. 그 여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축인 건설업과 조선업이 사실상 고사하면서 부지기수가 직장을 떠나야 했다. 따라서 가계 빚의 근본적인 해법은 경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소득을 높여주는 일이다. 특히 호남은 건설업과 조선업부터 살려야만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호남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직시해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역시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저조한 만큼 이를 제대로 다듬고 관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 흑인 여성 로사 파크는 뒤편 후 시내버스에 탄 뒤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 잠시 후, 백인이 승차하자 버스 운전사는 로사에게 자리를 내주고 흑인 전용좌석으로 옮기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로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로사는 '버스 내 흑백 분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에 따르면 흑인은 전용석인 앞좌석에, 흑인은 뒷좌석에만 앉을 수 있었다. 각 교회에서는 로사의 재판일에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였다. 흑인의 90%가 버스를 타지 않았고, 흑인들은 걸거나 심지어 당나귀를 타고 출근하기도 했다. 버스 안타기 운동은 1년여간 계속됐고, 결국 버스 내 흑백 분리법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흔히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으로 불리는 버스 안타기 운동은 이후 미국 흑인인권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이 운동을 주도했던 한 흑인 목사를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시켰다. 흑인 인권운

동인 대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다. 1963년 8월28일 오후 3시 미국 워싱턴 링컨기념관 계단에서 킹 목사가 노에 해방 100년을 맞아 토해낸 사자후 '내년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는 20세기 명언설로 꼽힌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언덕 위에서 그 옛날 노예들의 후손과 주인들의 후손이 함께 그득한 식탁에 함께 앉게 되리라는...'으로 시작하는 연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킹 목사 연설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킹 목사와 같은 장소에서 연설한다. 세계 50개 도시에서는 28일 오후 3시에 맞춰 종을 울린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라'는 킹 목사 연설의 한 구절에서 착안한 행사다. 자유와 인권, 평등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00-66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제 목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